

# 일본 크루즈선서 신종 코로나 무더기 확인

일본인 3명·외국인 7명 '양성'  
일본 감염자 총 33명으로 늘어  
3711명 승선자 전원 감염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에 감염된 홍콩인 환자가 탑승했던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10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務彦)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요코하마(横浜)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과 승무원 등 약 3700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에서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이 크루즈선에서 홍콩인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273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가토 후생노동성은 감염자 10명 중 3명이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 국적이라며 중증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연령대로는 50대 4명, 60대 4명, 70대 1명, 80대 1명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상태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은 양성으로 판명된 10명을 요코하마에 속한 가나가와(神奈川)현 내의 의료기관에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 2주간 선내에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

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홍콩 거주 남성(80)은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뒤 이달 2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돌아온

이 크루즈선을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시킨 채 지난 3일부터 일본과 홍콩, 대만을 포함해 총 56개 국가와 지역의 승객 2666명(일본인 1281명)과 승무원 1045명 등 총 3711명의 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이 크루즈선은 지난달 20일 요코하마항을 떠날 때는 승객 2407명, 승무원 1063명이 타고 있었다.

가고시마(鹿兒島)를 경유해 홍콩에 입항했을 때 130여 명이 내렸고, 이후 오키나와 나하(那覇)와 가고시마를 거쳐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요코하마로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된 홍콩 남성은 이 크루즈선이 가고시마에 들렀을 때 버스관광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3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10명을 포함해 33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발표된 추가 감염 확인자 중 한 명은 일본 정부가 파견한 전세기로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지바(千葉)현 거주 50대 일본인 여성이다.

이 여성은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 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이후 폐렴 증상을 보여 재차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지난달 21일 일본을 방문한 우한 거주 30대 여성으로 지난달 31일 폐렴 증상으로 지바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달 22일 일본을 방문한 후베이성 거주 50대 남성으로 같은 달 26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 美 대선 민주 아이오와 경선 중간 개표 38세 부티지지 1위 이변...샌더스 2위

바이든 4위 추락 '대세론' 타격

38세의 신예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미 민주당 대선 경선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개표 중간 집계 결과, 단숨에 1위에 오르는 대이변을 연출, 승리에 성큼 다가섰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2위를 달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은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총격의 4위'로 추락, 대세론에 큰 타격을 입는 등 후보간 희비가 엇갈렸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70대 후반 백인 남성'간 대결인 '바이든-샌더스'가 양강을 형성하는 듯했으나 중간집계를 기준으로 할 때 경선 구도가 부티지지와 샌더스 '신(新) 양강'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경선판이 출렁이고 있다. 아이오와 민주당이 4일(현지시간) 오후 5시 공개한 개표 62% 상황 기준 집계 결과, 부티지지 전 시장이 26.9%의 득표율(대의원 확보비율)로 1위에 올랐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25.1%로 그 뒤를 따르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워런 상원의원 18.3%, 바이든 전 부통령 15.6%를 각각 기록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12.6%, 앤드루 양 1.1%, 톰 스테이더 0.3% 등이었다.

이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부분인 대의원 확보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특히 부티지지 전 시장은 15% 미만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2차 투표에서 샌더스



지지 호소하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상원의원, 워런 상원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자 총수 단순합산 기준으로는 샌더스 26%, 부티지지 25%, 워런 20%, 바이든이 13%를 각각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에 그치는 '수모'를 겪으면서 초반부터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62% 개표 기준으로 '깜짝 1위'로 오른 부티지지 전 시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후보로, 중도 성향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남편'을 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부티지지가 돌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뒤 11월3일 본선에서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미국의 첫 동성애자 대통령이 된다. /연합뉴스

# 체육관·컨벤션센터에 야전병원 중우한 격리치료시설 13개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가 경증 환자들의 중세 악화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이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급하게 늘리고 있다.

5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우한시는 전날 체육관과 2곳의 컨벤션센터 등 모두 3곳에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병원을 세웠다. 병상 수는 모두 3400개다.

우한시는 이런 시설을 모두 13개로 늘려 약 1만명의 경증 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나빠지면 중증 전문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계속 치료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팀 소속인 추하이보(邱海波) 동남(東南)대학부속 병원 부원장은 "경증 환자가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오야후이 국가위생건강위 의정기관 국 부국장도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현재 환자의 절대다수는 경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병상 부족 때문에 많은 경증 환자는 자가 격리 상태에서 지내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영국인들을 태운 버스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옥스포드 스트리트 노튼 공군기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단 피하라"...영국·프랑스 중국 체류 자국민에 탈출 권고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피해 중국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4일(현지시간) AFP, BBC 방송에 따르면 도미니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국민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발병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탈출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 경우 이를 주선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브 장관은 현재 중국 내에 영국민 3만 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외무부는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후베이성과 우한시 여행은 아예 금지했다.

지난주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영국민 83 명이 우한에서 철수한 데 이어 2일에는 프랑스 전세기를 이용해 영국민 11명이 귀국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영국에 이어 프랑스 정부 역시 이날 오후 중국에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여행 자제를 경고하는 한편, 모든 자국민이 중국을 떠나 있을 것을 당부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중국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프랑스 국민들을 돕기 위해 대사관 및 영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 프랑스는 중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프랑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6명이다. /연합뉴스

# 트럼프 국정연설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나토서 4000억달러 이상 걷어"

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너무 낮다면서 4%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contribution)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

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너무 낮다면서 4%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미국이 오랫동안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서 1000억 달러 증액을 확보했다며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